

정부 “北 거부 거듭 유감… 대화 나오라”

남북 치열한 기싸움… 대화 여지는 남아

‘한·미 메시지’ 받은 中, 대북설득도 변수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성사 여부를 놓고 남북한이 기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우리 정부가 전격적으로 대북대화를 주의한 데 대해 북한은 14일 ‘교활한 솔책’이라고 첫 반응을 보였다. 우리 정부는 다시 이를 ‘대화제의 거부’로 받아들이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압박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전날 청와대에서 우리 정부의 강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통일부는 15일 “대회를 통한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에 대해서는 재차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자신이 제안하고자 하는 얘기를 충분히 하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단 남북 양측이 ‘대화’를 둘러싸고 한 차례씩 공방을 주고받은 셈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화 가능성은 남북 양측 모두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은 전날 “앞으로 대화는 남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언급, 대화의 여지를 넘겼다. 통일부도 이날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자신이 제안하고자 하는 이번 반응은 대화를 앞두고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북간 대화의 성사 여부는 존 케

이와 관련, 향후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남북대화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양측이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

한이 대화를 거부했다면 형식과 내용

적인 면에서 더 강하게 반응했을 것”

이라며 “과거에 남북대화가 중단됐

다가 재개되는 과정을 보면 북한의

이번 반응은 대화를 앞두고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점에서 남북 대화의 분위기는

큰 틀에서 남북한과 미중 관계 등 한

반도 주변의 정세와 맞물려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15일 ‘북한 미 사일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10일 이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정부와 군이) 계속 얘기해 왔다”며 “별 써 닷새가 지났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끌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태양절 김정은 금수산궁전 참배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5일 0시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을 맞아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연합뉴스

‘안보 컨트롤타워’ 광주출신 김장수 실장

51번째 靑서 숙식… 北 위협 대응 진두지휘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광주 출신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1번째 귀가하지 않고 청와대와 인근 군부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새 정부에서 신설된 ‘안보 컨트롤타워’ 청와대 국가안보실 책임자로 임명된 김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하루 전인 2월 24일 오후 청와대에 들어간 이래 지금까지 귀가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잠은 청와대 인근 군부대의 장교숙소(BOQ)에서 자고, 식사도 청와대 외부에서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명박 전 정부 측으로부터 청와대의 안보 통제상황을 넘겨받은 이래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선언과 군 통신선 차단, 개성공단 잠정 폐

쇄, 미사일 발사 예고 등으로 도발위험 수위를 높여 오자 24시간 대기체제를 유지하며 위기 대응 체제를 진두지휘 해온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장기간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박 대통령이 민생과 정책을 빼놓지 않아 행정 수 있는 것도 안보는 김 실장이 확실히 청진다는 신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 실장은 대북 ‘매파’로 알려졌지만 위기관리에 있어서는 ‘차분한 대응’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특히 이달 초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금지 조치를 했을 때 김 실장은 “청와대는 호들갑을 떠는 곳이 아니다”며 국민 불안을 야기하지 않고 신중하면서도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알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오리분’을 전한 바 있다. 김 실장이 “오리가 물 위를 광활하게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부지런히 쉬지 않고 밤을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와대는 컨트롤타워로서 외교안보라인 관계 부처들과 함께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복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 ‘재정 균형집행’ 대상… 인센티브 6억

광주시는 최근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2013 지방재정 균형집행’ 3월말 실적평가에서 대상을 수상, 재정 인센티브 6억원을 지원받는다. 광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집행목표인 1조 6436억원 가운데 59.6%인 9797억원을 집행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부터 재정 균형집행 추진 상황을 실시하고 일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는 광주 북구와 서구, 남구가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해 총 5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 5기 들어 지난 해 말까지 총 143건에 886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2013년 지역산업 진흥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에 선정돼 6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홍행기자 redplane@

“신문구독료 연 20만원까지 소득공제”

윤관석 의원 법개정안 발의

연간 20만원까지 신문구독료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은 15일 “일간지·전문지·지역신문·주간지 등 신문진흥법에서 정한 신문 구독료에 대해 연간 20만원 까지 근로소득

급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인터넷, 모바일 중심 언론 소비로 인한 신문 구독률의 저하로 어려워진 활자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150억원 향후 5년간 총 760억원의 환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경기자 jkpark@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5억
▷첨단지구 중심상업지 19억, 30억, 70억
▷진월동 중심상권 120억

대지/전답

▷나주시 평신동 446-7 일대
배수원수원 13,727㎡(41,150평) 매매가 협의
▷첨단, 수완 상업용지 균형활용지
▷선운지구 상업용지, 균형활용지

수익형 구분점포

▷첨단 매입상권 대로변 구분상가 150㎡(45평) 매매
▷첨단 중심대로변 복층 가눙 1,2층 점포 400㎡, 710㎡ 임대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10억 월 1,200만
▷첨단 매입상권 1층 구분상가 370㎡
매매 35억 임대가능

투자 유망 물건

▷신창동 청고용지(생산부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품암동 아파트 2층상가 124㎡(38평) 매매 2.5억
▷월산동 일반상업지역 6층 건물 매매 14.7억

후회없는 부동산투자
하늘땅공인중개사와 시작하십시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상담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협약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파티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974-0049 010-5536-0382

광주시 RDF사업 정상 추진 주목

시의회 환경복지위, 오늘 ‘동의안’ 심의

남구의회 반대… 진통 불가피

하는 재정부담과 유지관리 부담 등을 들어 민간투자사업의 불가피성을 내세웠다.

또 오는 2015년 상무소각장 폐쇄를 앞두고 있는데다 이달 말까지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부비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는 시의회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동의안 찬성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조치나 고용승계, 주민 피해 대책 등을 전제로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병문 환경복지위원회장은 “RDF사업이 늦어질 경우 손실보상액이 가중돼 궁극적으로 시민 전체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6월 회기까지 계속 유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 남구의회 RDF 반대 특별위원회가 이날 반대 의견서를 광주시의회에 전달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600억원에 달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 정가

강은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발의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광주 시가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포함해 각종 처우와 복지待遇를 개선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노력사항을 담고 있다.

진선기 “강기정·이용섭 단일화해야”



말했다. 진 의원은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두 후보는 정책토론과 여론 수렴을 통해 단일화를 이뤄 미래비전을 공유해야 한다”며 “차기 당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혁신과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

삼희공인중개사

모든부동산 급매매

급매처분상담
경매
공매
압류
미준공건물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부동산 말소와
동시에 일괄매입

매수자 상담환영

법률/금융상담 등록부동산 삼희빌딩 3층
234-1199 / 010-8730-3340
신뢰할 만한 인사를 만나면 인상이 즐겁습니다

신한공인중개사

신축원룸 매매전문

★전대정원 1분 룸 14개 월수의 500만원 매기 6억 2천

★전대상대, 농대 1분 룸 14개(상기 1개) 월수의 500 매기 5억 4천

★전대정원 1분 룸 21개(주택전환가능) 월수의 750만 매기 8억 4천만 전현대리석 벽돌시공(보5천 용 2억 5)

★전대정원 1분 룸 21개(주택전환가능), 엘리베이터, 전현대리석, 벽돌시공) 월수의 750 매기 8억 8천(보5천 용 2억 5)

★상층동 신축원룸 13개 월수의 500만 매기 5억 9천

★상층동 원룸 16개 월수의 600만 매기 6억 9천

운천역 1분 코너 상업지 광동간도로점

820㎡ 매기 26억(병원·전시장·도시형)

수원자구 상가분양 임대전문

1층~7층 까지(695㎡)

학교·병원·독서실·모든업종가능

수원자구 1층 분양 59㎡

매기 3억 6천(보3천 월 140만)

수원자구 3층 분양 임대 280㎡

매기 3억 3천(보3천 월 180)

독서실 급 입대

수원자구 1층 세대 모아일개 APT 후문

2층 91석 최신식 사설 최고위치

보증금 5